

## 대한항공, 美 공군 F-15 창정비 장기계약 체결

향후 10년간 총 계약액이 1억 달러에 달해



**대한** 항공(사장 심이택)은 美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운용중인 F-15 최신에 전폭기에 대한 계획창정비(PDM, Programed Depot Maintenance) 사업을 수행기로 하고 지난 3월 30일(美 현지시각) 美 공군과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수주한 美 공군 F-15 창정비 사업은 총 계약액이 1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군용기 창정비 사업 사상 최대 규모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201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0~12대의 F-15 전폭기를 완전분해, 정비 및 개조작업을 수행한 후 미군측에 인도하게 된다.

이 항공기 창정비 작업은 1대당 작업기간이 120일이 소요되며, 항공기 전반에 대한 성능점검, 수리, 검사 등의 창정비 기술인력 및 시설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대작업이다.

미군 창정비 계약기간이 보통 1년으로 관례화돼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0년 장기 계약체결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곧 대한항공에 대한 美 공군측의 파격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항공이 지난 '83년부터 지금까지 美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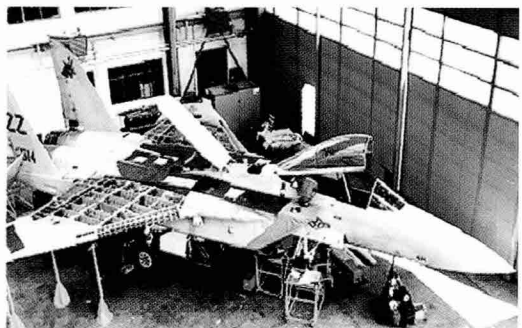
F-15 전폭기 370여대의 창정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쌓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납기준수 등을 미군측이 높이 평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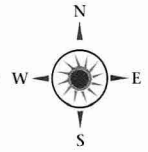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F-15 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9년도에는 美 공군으로부터 고객평가에서 최상등급을 받기도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수주하기까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 20여개 항공업체들과 물밑 경쟁을 벌였으며, 이들의 추격을 뿌리침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태평양 제일의 종합정비창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978년 군용기 정비사업에 진출한 이래로 우리 군과 미군으로부터 F-4, F-15, F-16 전투기, A-10 지상공격기, C-123, C-130 수송기, P-3C 대잠초계기, CH-47, CH-53, UH-60, 500MD, AH-1, Lynx 헬기 등 30여종에 이르는 2,500여대의 군용기를 정비 및 성능 개량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그 동안 첨단 항공기술 습득 및 외화 획득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전시를 대비한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유지 측면에서도 크게 이바지해 왔다.





# 한화, IDEX 2001 참가

## 세계 최대 무기시장인 중동지역 시장 개척

### (주)한화

무역 부문은 화약 부문과 공동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아랍에미레이트(Unted Arab Emirates/UAE) 아부다비(Abu Dhabi)에서 개최된 제 5차 세계방위산업 전시회(the 5th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시장 개척 활동을 벌여 참여국들과 무기구매대상국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IDEX 전시회는 1993년 이후 올해로 5회째이며 전세계 무기구매의 60%를 차지하는 중동/걸프/아시아 지역의 방위산업 구매력과 걸프전 이후 높아진 중동지역 무기 개량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현지 Field Demonstration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평 있는 전시 행사이며 주식회사 한화는 이번이 첫 번째 참가이다.

금번 IDEX 2001 전시회는 전시장 면적 100,000㎡에 총 42개국 800여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26국에서 국가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참관인원은 총 4만 여명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 참가업체는 (주)한화와 삼성물산 및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Naval & Defense 2001 홍보를 위해 참여한 무역 협회까지 총 3개 업체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으며, (주)한화는 자주포 생산 업체인 삼성테크윈과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한국 업체들은 대규모 국가

관으로 참가한 타 해외 업체들에 비해 소규모였으나 그 간의 회교국가에로의 성공적 방산품 수출에 중요한 주요 왕족들과 연결된 현지 Agent 발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현지 업체들과 접촉하여 향후 중동지역 수출시장 개척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전시기간동안 중동지역 각국 방산 구매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를 펼쳤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시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부품 및 반제품 수출 등 해외 협력업체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현재 선진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제 방산 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효과적인 홍보활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에 국가관 규모로 참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서울 에어쇼 2001' 10월 개막

지상·해상 무기체계도 함께 전시해 방산 비즈니스장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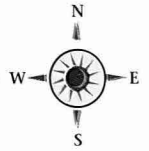


**세계** 최첨단 항공기로 청명한 가을 하늘을 수놓고 선진 방위산업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3회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약칭: 서울에어쇼 2001)」가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공군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서울에어쇼 2001」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세계 유수의 항공 및 방위산업체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기술교류 및 산업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21세기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범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6년 개최된 1회 대회와 '98년도의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3회 대회인 올해부터는 참가범위를 지상·해상 무기체계 분야로 확대하여 전문 방위산업분야의 비즈니스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공군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중·소형 항공기 민수산업의 성장 등 국내의 항공산업 수요가 크게 확장된 가운데 보잉(Boeing), 다쏘(Dassault-Aviation), 유로파이터(Eurofighter International), 로즈브루제니(Rosvoorouzhhine) 등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 생산업체가 모두 참가하며 중형항공기 생산의 선두 업체인 브라질의 엠브레어사(Embraer)가 참가하는 등 그 다양성이나 규모 면에서 1, 2회 대회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세계 최고의 비행기량을 보유한 미 공군 썬더버드팀(Thunderbirds)과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팀(Black Eagles), 그리고 민간 곡예비행팀이 만들어 내는 환상의 곡예비행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썬더버드 곡예비행팀은 미 공군의 F-16 Fighting Falcon을 운용하는 전문곡예비행팀으로, 1953년 6월 F-84G 썬더 제트기팀으로 창설되었고 이후 여러번 기종이 바뀐 후 1983년에 현재의 F-16 항공기로 완전히 면모

를 갖추어 세계 최고의 곡예비행팀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장인 이영희(李永熙, 공사 20기) 공군준장은 “21세기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년 에어쇼를 통해 항공산업분야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적 성원과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행사개최의 포부를 밝혔다.

약 30만명의 관람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에어쇼는 세계 25개국에서 250여개 항공·방산업체와 단체가 참가해 자사의 제품과 장비 및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방산학회 정책 세미나 개최

### 『국가안보와 항공우주산업발전 전략』을 주제로



를 개최하였다.

이동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세미나는 남인석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장의 「항공우주산업 정책과 정부의 역할」, 이영희 공군본부 전력발전단장의 「공군의 발전방향과 항공산업 육성」, 이기상 세종대 항공우주연구소장의 「항공우주산업 구조와 고부가가치화 전략」, 안영수 한국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능력 제고 방안」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이어서 안동만 국과연 항공유도체계 개발본부장, 서상목 대한항공 항공우주 사업본부장, 안택순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략사업본부장, 황진영 항공우주연구소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 방산학회(회장 : 황동준)는 지난 3월 22일 캐피탈 호텔에서 『국가안보와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2001년도 정기총회와 정책세미나